

기후 위기 직격탄



전남 감자의 위기

미국산 수미감자 고온 취약... 4년새 광주·전남 수확량 3만여t 감소 전국 두번째 생산량... 농민들 “기후에 강한 토종 품종 개량 서둘러야”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생산량이 많은 전남 감자가 기후위기 직격탄을 맞고 있다. 전남 감자농가와 전문가들은 기존 감자품종과 달리 고온에도 생산량이 보장되는 토종 감자 품종개량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농작물생산조사에 따르면 전남지역 감자생산량(봄·가을 감자, 고랭지감자)은 2019년 8만 8353t에서 2020년 5만 8409t으로 대폭 줄었고 2021년과 2022년에도 5만t대를 유지하고 있다.

전남지역 감자생산량은 강원도에 이어 전국에서 2위다. 2022년 기준 전국 감자 생산량 48만 600여t 중 11%를 차지한다. 특히 보성의 붉감자 생산량은 전국 최고다.

광주에서도 2019년 961t 생산량 감자가 2020년 769t으로 감소했고 2022년에는 381t으로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전문가들은 생산량 감소의 가장 큰 이유로 전

체 감자의 6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미감자’ 품종이 지구온난화를 버티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에서 개량된 종자인 수미감자는 흰감자 계열로, 전분 함량이 많고 재배도 어렵지 않아 봄·여름 대표적인 재배 품종이다. 수미감자는 생육 기간(90~100일)이 짧아 조기 출하할 수 있어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생육초기 온도가 낮아야 한다는 점이 한계여서 생산량이 툭 떨어졌다. 최근 30년 우리나라 기온이 20세기초(1912~2017)보다 1.4도 상승한 탓이다.

공급망 문제로 최근 옛새동안 판매가 중지됐다가 다시 판매를 시작한 대형 햄버거 프랜차이즈 감자튀김 문제도 기후위기 때문에 감자의 품질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전남 농민들은 기후위기 상황에 맞는 토종감자 연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몇년 새 이

상 기후로 큰 피해를 입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다.

고창에서 7년 전부터 토종 감자 농사를 짓고 있는 김완술(63)씨는 “우리나라는 현재 1~2가지 품종만 보급돼 있다.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종자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50여년 전 한국에 들어온 수미감자를 주된 품종으로 삼고 계속해서 재배하다보니 새로운 감자를 개발하거나 재배하려는 시도가 부족했다”면서 “시간이 지나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 감자 재배는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완주에서 감자농사를 짓는 이종란(여·59)씨도 “지역마다 기후와 땅에 맞는 감자가 다르다. 토종감자를 널리 재배할 필요가 있다”며 “무엇보다 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는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종씨앗과 전통농업을 위해 결성한 농민 단체인 ‘토종씨드립’ 변현단 대표는 “기후변화시기에 한가지 품종만 고집하면 도태될 수 있고 무엇보다 소비자와 생산자를 모두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다양성이 가장 중요하다. 소비자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생산자는 농사에 대한 걱정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변 대표는 다양한 품종을 감자 시장에 내놓기 위해선 토종 감자를 농업시스템에 넣고 유통 경로를 통해 내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품종을 생산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장성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관계자는 “품종 개발에 7년이 소요되고 정식 보급까지 12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개량종 보편화에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진용의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고령지농업연구소 감자연구실 실장은 “고온·가뭄·폭우 등 이상기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감자 생산량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감자 생산량 감소를 하나의 원인으로만 볼 수는 없지만 병해충과 고온, 바이러스에 강한 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강화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광주청소년 삶 디자인센터에서 ‘토종 씨드립 감자장’이라는 제목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감자의 종 개발의 필요성에 대한 행사가 열렸다. /김디인 기자 kdi@kwangju.co.kr

시세 조작 사기범 ‘코인왕’ 밀항 시도 혐의 2심서 감형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적발된 일명 ‘코인왕’ 이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성흥)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씨의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10월을 파기하고 징역 7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A씨의 밀항을 도운 선장과 브로커도 1심의 각 징역 1년 6월, 징역 2년이 파기돼 각 1년, 1년 6월로 감형됐다.

공모한 선원에 대해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1심형이 유지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8일 진도군 귀성항에서 밀항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브로커에게 2억원을 주고 밀항을 시도했으나 약천후로 귀항하다 해경에 적발됐다.

A씨는 실제가 없는 ‘포도 코인’을 발행·상장한 뒤 허위 공시와 시세조작 수법으로 투자자로부터 2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6월부터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 범행은 수사를 피해 밀항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양 ‘할인 분양 세대 입주 금지 논란’ 아파트 신규 입주자 이사 가로막은 기존 입주자 연행

오후 늦게 이사 마쳐

‘할인분양 세대 입주 금지’ 전단지 불어 논란(2023년 10월 25일자 광주일보 6면)이 됐던 광양시 마동의 한 신축아파트에서 기존 입주자들이 신규 입주자의 이사를 가로막다 경찰에 연행되는 등 소동이 일었다.

경찰경찰은 지난 26일 오후 1시께 광양시 마동의 한 아파트 입구를 가로막고 이사를 방해한 50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단지 내로 진입하던 이사 차량 앞에 드러누워 통행을 막는 등 방법으로 이사를 제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의 반대집회 등으로 신규 입주자는 오후 8시께 이사를 마쳤다.

이날 아파트 입구에서는 오전 10시께부터 30여명의 입주자들이 ‘시공사 측의 무책임한 할인분양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고 있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경찰에 지속적으로 집회 신고를 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해 4월 입주를 마친 뒤 전체 1114세대 중 194세대가 미분양으로 남았다. 이후 시공사에서 미분양 세대를 처분하려고 할인분양을 추진했다가 입주자들과 마찰을 빚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지난해 10월께 ‘할인분양 입주자와 부동산, 외부인 등 출입을 금지한다’는 공고문을 붙이기도 했다. 당시 전단지에는 ‘입주민 의견사항’이라며 ‘할인분양 세대에 주차요금 50배 부과’, ‘커뮤니티 및 공용부시설 사용 불가’, ‘엘리베이터 사용료 500만원 부과’ 등 내용이 적혀 논란이 일었다.

입주자들은 지난해 10월 31일 ‘할인분양 및 집회를 잠정 중단한다’는 취지로 시공사 측과 합의했으나, 시공사 측이 올 3월부터 할인분양을 다시 시작하면서 갈등이 재차 불거졌다. 할인분양 규모는 분양가와 배란다 확장비 기준 10층 이상 3000만~4000만원, 10층 미만 5000만~60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양시 관계자는 “입주민은 시공사가 사전 협의 없이 지나치게 큰 폭으로 할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공사는 입주자들의 요구 사항이 지나쳐 협의가 잘 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며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문제인데다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도 나오고 있는만큼 갈등을 봉합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해충 잡이라 여름철을 맞아 기온이 오르고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광주에서 모기 등 해충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광주시 동구 보건소 직원이 27일 금남로공원에서 해충을 방제하기 위한 약제를 살포하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말다툼하다 동생에게 흥기 휘두른 친형 기소

동생과 말다툼하다 흥기를 휘두른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신금재)는 친동생을 흥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께 광주시 광산구 자택에서 20대 동생 B씨에게 흥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흥기에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A씨도 다툼을 말리는 부모와 몸싸움하다

다쳤다.

검찰은 A씨가 흥기를 휘두르기 직전 동생에게 “지금 아니면 못 죽이겠다”고 말한 피해자 진술을 확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71 광주일보 71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까!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